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의 數와 主題와 經典

金 泰 光*

目 次

1. 들어가면서
 2.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의 數
 3.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과 主題
 4.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과 經典
 5. 맺음말
-

1. 들어가면서

본생담(자타카, 본생설화)의 대부분은 釋尊(석가모니) 자신이 說敎했다고 되어 있으며, 부처의 說法으로서의 九分敎나 十二分經 안에는 本生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본생담은 釋尊 入滅 후인 기원전 3세기경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거의 定說로 되어 있다. 본생담의 대부분은 당시의 민간전승을 받아들여 꾸민 것으로 설화의 보고로 일컬어지고 있다¹⁾. 본생담은 『六度集經』 등의 本生經類의 經典뿐만 아니라 『法華經』 『大般涅槃經』 따위의 一般 經典 안에도 수많이 아로새겨져 있다²⁾. 본생담의 수에 관해서는 古來로 五百本生 이야기라고 종종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南伝의 『자타카』로, 현재 547화(실제 수록은 530화)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 經典, 특히 大乘 經典 중에는 南伝의 『자타카』에 보이지 않는 본생담(특히 대승적 본생설화)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실제 본생담 수는 五百개를 훨씬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수많은 본생담 중에서 일본에는 어떤 본생담이 얼마만큼 수용되었을까?

* 경동대학교 전임강사 일본고전문학

- 1) 본생담에 관해서는 千瀉龍祥씨의 『ジャータカ概観』(鈴木學術財團, 1979)이 상세하다.
- 2) 각 經典 속의 본생담에 관해서는 千瀉龍祥씨의 『本生經類の思想史的研究』(改訂増補版, 山喜房佛書林, 1979)가 유익하다.

본고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하여 먼저 연구사상 처음으로 일본문학에 등장하는 본생담의 개략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의 특징을 이야기 主題와 出典 經典 양면에서 접근해서 분석해 본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의 數

그런데, 본생담 중에는 南伝에만 있는 것, 北伝에만 있는 것, 또는 南伝에는 釋尊의 전생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北伝에서는 釋尊의 전생이야기로 취급하지 않는 것(예를 들면, 『今昔物語集』 제3권 제22화의 盧至長者譚 등)도 있다. 또, 같은 이야기라도 자료에 따라서 釋尊의 전생이야기로 취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본생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같은 지적은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 중에서도 말할 수 있다. 수는 적지만, 같은 이야기라도 자료에 따라서는 본생담으로 취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녀의 유혹에 빠져 신통력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유명한 一角仙人譚을 들어보자. 『今昔物語集』(제5권 제4화)의 경우는 본 설화를 「カク嗚呼ナル聖人コソ有ケトナム語り伝ヘタルトヤ(이런 바보 같은 성인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맺어 석존의 전생담, 즉 본생담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三國伝記』(제1권 제8화)에서는 「昔ノ一角仙人ハ今ノ釋迦如來是ナリ。昔ノ扇陀淫女ハ今日ノ耶輸多羅是也。夫婦ハ五百生ノ縁ト経ノ中ニ説ケル, 是以テ爲証也(옛날의 一角仙人은 지금의 釋迦如來이고 그 때의 扇陀淫女는 지금의 耶輸多羅이다. 부부는 五百生의 인연이라고 仏經에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맺어, 一角仙人이 석존의 前生の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본생담은 보통 「現在事」 「過去事」 「連結」³⁾부분의 三部형식을 취한다. 南伝의 『자타카』가 바로 그렇다. 그러나, 중국·한국·일본이라는 北伝에 있어서는 본생담이 수용·섭취될 때 「現在事」는 없어지고 「過去事」 「連結」부분의 二部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다만, 流離王이 석가종족을 죽이는 이야기(『今昔物語集』 제2권 제28화)와 같이, 부처 在世 때의 이야기(仏伝)에 짜 넣어 질 때는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三部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본생담은 설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비유인연담으로 즐겨 사

3) 「옛날의 ○○가 현재의 釋尊이고, 옛날의 ○○가 현재의 누구이다」라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부분을 일컬어 말하는 호칭.

용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들은 불교설화집 등 일본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본생담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작품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三宝繪』 『注好選』 『百座法談聞書抄』 『今昔物語集』 『金澤文庫本仏教說話集』 『宝物集』 『金言類聚抄』 『私聚百因緣集』 名大本 『百因緣集』 『沙石集』 『三國伝記』 『釋迦の本地』 靜嘉堂文庫藏 『孝行集』 등의 仏教說話集 또는 仏伝
- 『開目抄』 『正法眼藏』 등의 日蓮·道元の 仏書 作品
- 『河海抄』 등의 『源氏物語』 註釋書
- 『源平盛衰記』 『太平記』 『曾我物語』 등의 軍記物
- 『梁塵秘抄』 和讚 등의 歌謠 작품

이와 같이 본생담은 불교설화집 및 불전에 주로 많이 등장하지만, 본생담의 일본 내 유포에 따라 소설, 가요 등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의 수를 조사해보자.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100개 정도의 본생담이 일본문학에 등장한다. 물론 散失文獻이나 논자가 모르는 문헌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논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불교설화집과 불전 등 일본문학작품이며, 조사대상으로 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중세가 끝나는 무로마치시대 말기, 에도시대 초기까지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100개의 본생담 중에서 釋尊의 전생이야기로 수용된 흔적을 일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昔の雪山童子は今の釋迦如來是なり (옛날의 설산동자는 지금의 釋尊이다)」 (『三宝繪』 상권 제10화)와 같이, 釋尊의 전생이야기로서 확실히 인식되어 수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今昔物語集』 제3권 제22화 「盧至長者語」, ② 『今昔物語集』 제4권 제3화 「天竺長者 婆羅門牛突語」, ③ 『今昔物語集』 제5권 제24화 「龜, 不信鶴教落地破甲語」, ④ 『今昔物語集』 제4권 제4화 「拘拏羅太子, 扶眼依法力得眼語」, ⑤ 『今昔物語集』 제3권 제15화 「摩竭提國王, 燼杭太子語」, ⑥ 『今昔物語集』 제5권 제1화 「僧迦羅·五百商人, 共至羅刹國語」, ⑦ 『今昔物語集』 제5권 제5화 「國王, 入山狩鹿見鹿母婦人爲后語」, ⑧ 『今昔物語集』 제5권 제19화 「天竺龜, 報人恩語」, ⑨ 『今昔物語集』 제5권 제2화 「七十余人流遣他國國語」, ⑩ 『百座法談聞書抄』 (七月八日條)의 「不順王」, ⑪ 『金言類聚抄』 제23권 제14화 「牛念仏生天之事」, ⑫ 『金言類聚抄』 제23권 제16화 「野狐欲娶迦夷國王女事」, ⑬ 『金言類聚抄』 제23권 제20화 「獼猴起土石塔事」.

이 중, ①~③은 南伝에서는 본생담으로 다루지만 (『자타카』 제535화·28화·215화),

北伝에서는 본생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④는 경전에 따라 부처의 전생이야기로 취급하는 것(『六度集經』)과 그렇지 않은 것(『大唐西域記』)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후자의 것이 수용되었던 것 같다. ⑤~⑨는 출처의 자료를 조사해 보면 본생담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본에서의 설화수용 樣相을 살펴보면 본생담 특유의 「連結」 부분이 빠져 있어 원래 이 설화가 본생담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것이다. ⑩은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본생담으로 추정되지만, 「連結」 부분이 빠져 있어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⑪~⑬은 同話を 수록한 「經律異相」의 이야기로 보아 본생담인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現存本『金言類聚抄』에는 목록만 있고 본문내용이 없어 그것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13화는 일본에서 석존의 전생이야기로는 수용되지 않은 것이거나 그것이 지금으로선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3.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과 主題

본고의 主眼의 하나는 석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본생담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도에 있다. 따라서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을 수집·분석함에 있어 釋尊의 전생이야기로서 섭취된 흔적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釋尊의 전생이야기로 확실히 수용된 나머지 87화를 가지고, 本生譚의 主題에 따라 분류하여 일본에서는 어떤 主題의 이야기가 주로 유포되고 있었는지 조사해 보기로 하자. 물론 완벽한 조사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 일본에서의 본생담의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제, 經典과 작품에서의 의미부여 등을 고려하여 논자 나름대로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문의 성격상, 이야기의 간략한 소개와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기에, 長文이 되겠지만 각 본생담마다 이야기의 간략한 소개와 수용된 일본문헌을 實例로 하나씩 들어 두기로 한다.

I. 六波羅蜜(六度)⁴⁾에 관한 이야기 全28화

a. 檀(布施) 이야기 11화

①盲者에게 자기 눈을 바친 快目王(『今昔物語集』 제4권 제17화) ②매에 쫓기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자기 살점을 떼어 매에 준 尸毘王(『三宝繪』 상권 제화) ③굶주린 다섯 夜叉(惡鬼)에게 자기 피를 흘려 마시게 한 慈力王(『今昔物語集』 제4권 제7화) ④인접국의 국왕이 고용한 婆羅門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목을 잘라 준 大光明王(月光王라고도, 『今昔物語集』 제5

4) 六波羅蜜은 보통 檀波羅蜜(布施), 持戒波羅蜜, 忍辱波羅蜜(忍耐), 精進波羅蜜, 禪定波羅蜜, 般若波羅蜜(智慧)의 여섯 가지 波羅蜜을 말하며, 十波羅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方便, 願, 力, 智의 네 가지를 더한다.

권 제8화) ⑤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던진 薩埵太子(『三宝繪』 상권 제 화) ⑥ 평소 布施를 즐겨 끝내는 자기 두 아들과 자기 妻까지도 布施해 버린 須太拏太子(善施太子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12화) ⑦ 商人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머리를 바위에 내리친 沙弥(『今昔物語集』 제5권 제11화) ⑧ 원숭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기 허벅지 살을 독수리에게 떼어 준 獅子(『今昔物語集』 제5권 제14화) ⑨ 임신한 시슴을 대신해 자기 몸을 임금님의 수라 상에 바치려 한 鹿野苑의 鹿王(『三宝繪』 상권 제 화) ⑩ 자기 부모로 삼아 섬기는 노인에게 끼니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 兔(『因位和讚』) ⑪ 바닷가를 가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布施한 大魚(『今昔物語集』 제5권 제29화)

b. 持戒 이야기 10화

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須陀摩王(普明王이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2화) ② 인접국이 쳐들어 왔을 때 殺生하는 것을 꺼려 치와 함께 深山에 들어간 大國王(『宝物集』 제5권) ③ 殺生의 죄를 면하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10세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無言太子(沐魄太子라고도, 『金澤文庫本仏教說話集』) ④ 미인의 유혹에 빠져 神通力을 잃어버린 一角仙人(『宝物集』 제5권) ⑤ 까마귀에게 조개껍질을 깨트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죄로 엄청난 罪業을 받은 童子(『注好選』 하권 제3화) ⑥ 사냥꾼이 袈裟를 입었기에 저항하지 않고 자기 몸을 바친 堅誓獅子(『三宝繪』 상권 제 화) ⑦ 사냥꾼이 袈裟를 입었기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象牙를 사냥꾼에게 준 六牙象(『金言類聚抄』 제23권 제6화) ⑧ 새장에 갇혀 전혀 먹이를 먹지 않고 三宝만을 외쳐 위험을 벗어난 비둘기(『金言類聚抄』 제22권 제13화) ⑨ 사냥꾼이 袈裟를 입었기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바친 大力毒龍(『類集抄』 제24화) ⑩ 比丘가 坐禪 때는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法을 듣고만 있었던 이(風, 『世俗諺文』 상권)

c. 忍辱(忍耐) 이야기 1화

① 忍辱을 修行하여 폭약무도한 迦利 왕에게 손발, 귀와 코가 잘려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은 忍辱仙人(『三宝繪』 상권 제3화)

d. 精進 이야기 4화

① 貧民을 구하기 위해 용궁에 가서 如意宝珠를 구해온 大施太子(善友太子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4화) ② 精進力을 가지고 용감하게 羅刹鬼와 맞서 싸워 이긴 賈客主(商主 상하本生 이야기, 『無量義經疏』 제 권) ③ 칠일동안 한 나리를 들고 底沙佉을 讚嘆한 이야기(『因位和讚』) ④ 친구의 精進을 도운 벌(蜂, 『法華懺法私』 하권)

e. 禪定 이야기 1화

① 새가 머리카락에 등지를 틀어 새끼를 낳아 무사히 떠날 때까지 禪定을 계속한 尙闍梨仙人(正闍梨仙人이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5화)

f. 般若(智慧) 이야기 1화

① 왕자들과의 영토다툼이 있었을 때 총명한 智慧로 영토를 똑같이 칠등분하여 해결한 勅賓大臣(拘賓大臣이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 화).

II. 孝養報恩의 이야기 全16화

①부모와 함께 국외에 방랑 중에 饑死에 직면한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살점을 찢어 바쳐 부모를 살린 須闍提太子(『今昔物語集』 제5권 제7화) ②重病에 걸린 부왕에게 孝養하기 위해 자기의 눈과 골수를 약으로 바치게 한 忍辱太子(『今昔物語集』 제2권 제4화) ③늘 어머니에게 효도하였지만, 조금의 불효를 저지른 탓에 천상과 지옥을 오간 慈童女長者(『私聚百因緣集』 제1권 제4화) ④효심이 깊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부서진 阿彌陀堂을 修理하여 供養한 色金童子(靜嘉堂文庫藏 『孝行集』 제33화) ⑤돌로 석탑을 쌓아 부모의 後生을 빈 花天童子(『私聚百因緣集』 제4권 제7화) ⑥아버지의 죽은 장소에 탑을 세워 명복을 빈 愁分童子(『私聚百因緣集』 제4권 제11화) ⑦盲人의 부모를 모시고 산 속에서 仏道를 정성껏 修行한 施无童子(談童子라고도, 『三宝繪』 상권 제13화) ⑧조금의 官物을 훔친 優婆塞(『今昔物語集』 제2권 제3화) ⑨웅덩이에 빠졌으나, 여우의 報恩으로 구해진 獅子王(『金言類聚抄』 제3권 제2화) ⑩산중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을 구해준 곰(熊, 『金言類聚抄』 제23권 제2화) ⑪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九色の 사슴(『今昔物語集』 제5권 제8화) ⑫盲母를 奉養한 香象(『今昔物語集』 제5권 제26화) ⑬자기가 사는 숲에 報恩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 산불을 끈 鵬(『私聚百因緣集』 제3권 제7화) ⑭먹이가 없어 자기 허벅지 살을 찢어 새끼들에게 먹이려 한 鶴(『金言類聚抄』 제22권 제2화) ⑮밭의 곡식을 주워서 정성껏 盲父母를 봉양한 鸚鵡王(『金言類聚抄』 제22권 제4화) ⑯집에 혼자 있는 盲父가 걱정되어 맛있는 먹이를 주어도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던 金色의 독수리(鷲, 『善光寺本地』).

III. 求法聞法 이야기 全9화

①半偈를 듣기 위해 婆羅門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몸 천 군데에 상처를 내어 灯心을 밝힌 度闍尼婆梨王(轉輪聖王 또는 宝灯王이라고도, 『今昔物語集』 제5권 제9화) ②求道를 위해 왕위를 버리고 山林修行하는 중 90일 동안이나 바늘에 자기 몸을 찢리는 시련을 이겨내 仙人으로부터 八字의 法門을 얻은 毘楞伽梨王(『今昔物語集』 제5권 제10화) ③婆羅門으로부터 四句의 偈를 듣기 위해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 梵摩王太子(求法太子라고도, 『私聚百因緣集』 제3권 제19화) ④一句의 偈를 듣기 위해 夜叉에게 두 이들을 바치고 자기 몸까지도 바치려 고한 妙色大王(善面王라고도, 『私聚百因緣集』 제1권 제5화) ⑤阿私仙人에게 천년간 給仕하여 法華經을 얻은 大王(『東大寺諷誦文稿』) ⑥天魔로부터 一偈를 듣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린 最勝仙人(『沙石集』 제2권 제1화) ⑦天魔에게 偈를 듣기 위해 자기피부를 벗겨 종이로 하고, 자기 피를 먹으로, 그리고 자기 뼈를 붓으로 하여 偈를 書寫한 樂法梵士(愛法梵士라고도, 『雜念集』) ⑧羅刹에게 半偈를 듣기 위해 자기 몸을 벼랑에 던진 雪山童子(『三宝繪』 상권 제10화) ⑨부처가 『涅槃經』을 說하는 것을 듣고 그 法을 공양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판 貧人(『注好選』 중권 제36화).

IV. 因果의 道理(宿業) 說示 이야기 全9화

①부인 몰래 설익은 거북이 고기를 혼자 독차지해 먹은 迦羅國太子(『今昔物語集』 제3권 제13

화) ②般若의 空의 교리를 說教하면서 지나간 法師(『今昔物語集』 제3권 제19화) ③淫女와 노는 중에 美服을 갖고 싶어져 그녀를 죽이고 옷을 벗겨가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노름꾼 淨眼(孫陀利女の 誹謗宿業 이야기, 『私聚百因緣集』 제1권 제6화) ④장난 삼아 물고기 머리를 막대기로 때린 小兒(『釋尊 頭痛宿業 이야기, 『今昔物語集』 제2권 제28화) ⑤前生에 사슴의 등을 때린 이야기·釋尊 涅槃時의 背痛宿業(『今昔物語集』 제3권 제28화) ⑥前生에 馬麥를 훔친 이야기·釋尊의 食馬麥宿業(『宝物集』 제5권) ⑦瀕死에 처한 이(風)를 육일간 보살펴 준이야기·釋尊이 民家에 六日간 머문 宿緣(『今昔物語集』 제2권 제5화) ⑧개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輪廻를 거듭한 白犬(『宝物集』 제2권) ⑨前生에 묻어 둔 황금항아리를 항상 맴돌고 있었던 毒蛇(『合類大百因緣集』 제8권 제8화).

V. 發願誓願 이야기 全5화

①자식의 善見太子에 따라 菩提心을 일으킨 善首王(『法華懺法私』 상권) ②국왕, 태자를 도와 함께 發願, 誓願한 宝惠大臣(『釋迦如來釋』) ③惡世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五白가지의 大誓願을 發願한 宝海梵士(『釋迦如來釋』) ④부처의 등에 난 질환을 참기름으로 치료하여 고쳐주고 미래에 똑같은 부처가 되겠다고 發願한 廣熾陶師(『私聚百因緣集』 제1권 제2화) ⑤구슬을 부처에게 供養하고 發願한 小兒(小兒 3인의 發願 이야기, 『宝物集』 제5권).

VI. 仏供養 功德 이야기 全5화

①꽃파는 소녀 耶輸陀羅로부터 연꽃을 사서 燃燈佛에 공양하고 부처로부터 授記받은 摩訶仙人(善惠仙人 또는 孺童菩薩라고도, 『三國伝記』 제6권 제28화) ②迦葉佛로부터 一生補處를 授記받아 兜率天에 태어난 樹提梵士(『釋迦如來釋』) ③길에서 부처를 만나 손에 쥐고 있었던 콩을 뿌려 供養한 婆羅門(『世俗諺文』 상권) ④燈油를 가지고 毘婆尸佛을 供養한 釋尊前生(『拾珠抄』 제3권) ⑤장작을 판 돈으로 부처를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 가난한 장작팔이(『覺禪鈔』).

VII. 기타 全15화

a. 畫像 功德 이야기 2화

①八万 四千개의 弗沙佛의 畫像을 자기가 다스리는 諸國에 배포해 공양하게 한 波塞奇王(『一切設利羅集』 하권 제38화) ②畫像을 보고 菩提心을 일으켜 그것을 갖고 산에 들어가 一心으로 諦觀하여 得道한 大精進菩薩(『釋迦如來釋』)

b. 正法護持 이야기 2화

①大乘經을 비방한 婆羅門을 죽인 仙預王(『日本靈異記』 중권 제12화) ②正法護持를 위해 惡比丘들과 맞서 싸운 有德王(日蓮 『立正安國論』)

c. 法華經 功德 이야기 2화

①法華經 化城喩品の 第16王子(『百座法談聞書抄』) ②法華經 常不經菩薩의 常不輕比丘(『閑居友』 상권 제1화)

- d. 比叡山佛法相應의 地 이야기 1화
- ①迦葉仏로부터 授記를 받아 兜率天에 있던 釋尊이 峽에서 梵音이 들리는 것을 보고 그 峽도를 따라 일본에 와보니 그것이 변하여 한 섬이 되었는데 바로 지금의 比叡山이라는 比叡山開闢에 관한 이야기(『太平記』 제18권)
- e. 釋尊 功德 이야기 1화
- ①병자들이 자기 몸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을 치유케 했던 人藥王子(『宝物集』 제4권)
- f. 放生 功德 이야기 1화
- ①물이 말라 다 죽어 가는 연못의 물고기를 살린 流水長者(『三宝繪』 상권 제 7화)
- g. 仏道로 인도하는 이야기 1화
- ①거문고를 치면서 왕의 행차 앞을 통과한 比丘(『今昔物語集』 제5권 제12화)
- h. 誦經 功德 이야기 1화
- ①誦經의 功德으로 延命한 翁(名大本『百因緣集』 상권 제52 화)
- i. 國王의 惡政을 바로잡은 이야기 1화
- ①惡政을 直諫하여 바로잡은 鸚鵡王(『金言類聚抄』 제22권 제7화)
- j. 夫婦愛 이야기 1화
- ①전생에 마기슈다女와 결혼하여 동고동락한 閻浮長者(『釋迦の本地』 중권)
- k. 主題가 조금 불명확한 이야기 2화
- ①早離遠離 이야기· 長那梵士(『宝物集』 제3권) ② 원숭이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온 거북이의 피임에 빠졌으나, 재치로 이를 물리친 猿숭이(원숭이의 生肝이야기, 『注好選』 하권 제13화).

이상,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았다. 위에서 보듯, 일본 본생담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보이는데, 단연 많은 것이 「六波羅蜜」이고 다음으로 「孝養報恩」「求法聞法」「因果의 道理(宿業)說示」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에서 주제별로 분류한 수치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본에 수용된 본생담의 주제

主題	數量	비율
六波羅蜜	28화	32%
孝養報恩	16화	18%
求法聞法	9화	10.5%
因果의 道理(宿業)說示	9화	10.5%
發願誓願	5화	6%
佛供養 功德	5화	6%
其他	15화	16%
계	87화	100%

波羅蜜行은 北伝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六波羅蜜이며, 南伝에서는 十波羅蜜이다. 古來로 本生담의 集成의 대부분은 北伝, 南伝을 불구하고 波羅蜜思想과 결합되어 이루어져 왔다. 北伝의 『六度集經』, 南伝의 『차리아피타카』(所行藏經), 『니다나카타』(因緣物語)⁵⁾ 등이 그것이다. 『六度集經』은 本生담을 六波羅蜜로 분류, 집성해 보살행을 강조한 것으로, 그곳에 수록된 전체 76화의 本生담 중, 布施 24화, 持戒 13화, 忍辱 12화, 精進 19화, 禪定 2화, 智慧 4화로 되어 있다⁶⁾. 한편 일본에 수용된 本生담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방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布施, 持戒의 이야기가 가장 많고, 이어 精進의 이야기가 조금 있고, 忍辱, 禪定, 智慧의 이야기는 거의 볼 수 없다. 양자를 대비해서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수용된 本生담에서는 忍辱, 精進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점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孝養報恩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釋尊本生, 求法者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釋尊本生이 수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孝養報恩, 求法聞法은 불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사상의 하나로 일본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또 한국, 중국 등 大陸에서도 이들에 얽힌 本生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것들에 관한 話題도 많고, 보다 釋尊認識과 깊이 결부되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本生담이 의거하는 기반은 業과 輪廻, 因果応報이다. 本生담은 이러한 불교사상을 선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본생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釋尊의 宿業(惡業)을 다룬 이야기이다. 그 예를 몇 개 들어보면, 釋尊의 前身인 迦羅國太子가 妻에는 조금도 주지 않고 거북이를 독차지해 먹거나(『今昔物語集』 제3권 제13화), 釋尊의 前身인 노름꾼 淨眼이 淫女와 노는 중에 美服을 갖고 싶어져 그녀를 죽이고 옷을 벗겨간 이야기(『私聚百因緣集』 제1권 제6화) 등 많이 발견된다. 어쨌든 일본 本生담에서는 欠点도 失敗도 있는 人間釋尊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하겠다. 즉, 일본본생담에서는 마이나스적인 면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강한 지향을 볼 수 있다.

本生담은 일본인의 人間釋尊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된다. 『梁塵秘抄』(雜法文歌)의 유명한 「仏も昔は人なりき我等も終には仏なり 三身仏性具せる身と知らざりけるこそあはれなり(부처도 옛날 前生에는 사람이었지, 우리들도 마침내는 부처야, 모든 중생이 仏性을 갖추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구나)」라든가, 「一言芳談」(하권)의 「釋迦仏の因位にも、學生智者にてはましまさず、半偈の爲に身を投げ、虎の爲に命を捨つる道心者にてこそ、ましまししか(釋尊도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는 학자, 성인이 아니셨어요, 半偈를 얻기 위해 몸을 던지고, 호랑이를 위해

5) 『니다나카타』(因緣物語)에 관해서는 藤田宏達씨의 「仏伝資料の一考察 - 『ニダーナカタ』 覺え書 - 」(『仏教の歴史的展開に見る諸形態』創文社, 1986)가 유익하다.

6) 伊藤千賀子, 「本生經としての『六度集經』の性格と特徴」(『印度學仏教學研究』 제33권 제1호, 1984년).

목숨을 던진 구도자이셨어요」와 같이 人間釋尊意識에 본생담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日本에 受容된 本生譚과 經典

일본에서의 본생담과 經典을 생각할 때,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는 經典은 『大智度論』, 『報恩經』, 『法華經』, 『涅槃經』이다.

龍樹의 作이라고 전해지는 『大智度論』(百卷)에는 수많은 본생담이 比喻因緣譚으로 즐겨 利用되었다. 그곳에서 보이는 본생담들은 또한 헤이안시대 知識人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天台三大部の 註釋書에도 많이 인용되어져 있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주로 波羅蜜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으며, 특히 『三寶繪』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문학에 등장하는 주된 것들을 들어보면, 尸毘王, 須陀摩王, 大施太子, 拘賓大臣(劬賓大臣), 尙闍梨仙人, 樂法梵土, 大力毒龍, 雉(鴛)에 관한 본생담이다.

중국에서 성립된 疑經일 것이라고 말해지는 『報恩經』(全 7권, 失譯)에는 모두 9개의 본생담이 보이는데, 이 중 8개나 일본문학에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今昔物語集』에 많이 보인다(5개). 『今昔物語集』에서 볼 수 있는 것에는 『今昔物語集』의 卷數, 番号를 넣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大光明王(제5권 제8화), 轉輪聖王(제5권 제9화), 身上千灯설화), 須闍提太子(제5권 제7화), 善友太子(大施太子), 忍辱太子(제2권 제4화), 多少의 官物을 훔친 優婆塞(제2권 제3화), 堅誓師子, 虱(이).

『法華經』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 극히 尊重 받은 經典이다. 千年給仕의 大王, 尙不輕菩薩, 第16王子 등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提婆品에 수록되어 있는 千年給仕의 大王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法華八講의 유행과 함께 널리 유포된 본생담이다. 이 설화는 釋尊이 過去世에 國王이었을 때, 提婆達多의 前身이었던 仙人에게 千年給仕하여 『法華經』을 伝授받은 이야기로, 『注好選』중권 제3화, 『私聚百因緣集』제1권 제3화, 日連의 『身延山御書』등,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法華八講에서 제5권을 講演하는 날에는 옛날의 大王의 故事를 흥내내, 땀감을 짊어지는 修行道가 행해졌다. 그 때, 行基 作品이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法華經をわがえしことは, 薪こり菜摘み水汲み仕へてぞえし(法華經을 내가 얻은 것은 장작 패고 나물 캐고 물 길러서 섬겼기에 얻은 것이지)」를 부르면서 꽃을 뿌리며 행해졌다고 한다(『三寶繪』중권 제18화).

『涅槃經』에서 나온 본생담으로는, 유명한 귀신으로부터 半偈를 얻기 위해 자기몸을 벼랑에 내 던진 유명한 雪山童子譚, 부처로부터 涅槃經을 듣고 그 法을 供養하기 위해 자기 신체의 살점을 떼어내 판 貧人譚, 그리고 正法護持의 仙預王·有徳王譚이 있다. 그 중에서도 雪山童子譚의 無常偈는 널리 알려져 문학작품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몇 예를

들면, 『平家物語』 제1권(祇園精舎)의 「祇園精舎の鐘の聲 諸行無常の響あり(祇園精舎의 종소리, 諸行無常을 노래하고)」이라든가, 『和漢朗詠集』(無常의 「生ある者は必ず滅す。釋尊いまだ栴壇の煙を免れたまはず(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釋尊조차 아직 죽음을 면하지 못하셨다)」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들 외에도 『興起行經』 『六度集經』 『大唐西域記』 『賢愚經』 『悲華經』에서 나온 본생담이 일본에서 많이 유포되었다. 일본에서 유포된 單一本生譚 經典으로는 布施行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須太孛太子譚(『三宝繪』 상권 제12화)을 수록한 『仏說太子須太孛經』, 孝養을 강조한 施无童子譚(『三宝繪』 상권 제13화)을 수록한 『仏說菩薩睺子經』,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無言童子譚(『金澤文庫本仏教說話集』)을 수록한 『仏說太子沐魄經』, 報恩을 강조한 九色の 사슴이야기(『今昔物語集』 제5권 제18화)를 수록한 『仏說九色鹿經』 등을 들 수 있다.

본생담은 「『六度集經』 『智度論』 等に見えたり(『六度集經』 『智度論』 등에 보인다)」(『三宝繪』 상권 제1화)와 같이 複數資料로 구성되기도 하고, 「『智度論』 に見えたり(『智度論』 등에 보인다)」(『三宝繪』 상권 제2화)와 같이 單一資料로 구성되기도 하며, 혹은 재인용되거나 거기에 또 다른 자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그 관계는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성립된 『經律異相』(50 권 이다 『經律異相』은 梁의 宝唱 등이 經·律·論 三藏의 要文을 분류해 選集한 것이다. 『經律異相』이 일본 헤이안시대에 이미 伝來해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실제로 名取新宮寺 에는 헤이안시대 末期의 寫本이 現存하고 있으며, 중세의 설화집 『宝物集』, 『言泉集』 등에 인용되어 있고, 또한 일본에서 편찬된 仏典類書로서 殘存하는 唯一의 著述作品으로 알려져 있는 『金言類聚抄』 에도 큰 영향을 끼친 仏書이다⁷⁾.

興福寺의 僧, 藏俊(1104~1180)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類集抄』는 길고 짧은 이야기 모두 합쳐, 전체 六十六章段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일종의 百科全書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불교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제2~25段은 본생담을 포함한 동물담인데, 먼저 그 標題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二十二, 師子王墮井爲野干所救
- 二十三, 象王供養仏
- 二十四, 龍持一日戒爲人所剝生忉利天
- 二十五, 虱依坐禪人約飲血有時節

이 중 22段은 노쇠해서 우물에 빠져 여우에게 구출된 師子王本生으로 그 때의 사자왕이 지금의 釋尊, 그 때의 여우가 지금의 阿難이라는 이야기이다. 23段은 본생담은 아니

7) 小峯和明씨, 「金言類聚抄について - 仏典類書の成立 - 」(『仏教文學』 제6号、1983.3).

며, 釋尊在世 때 象王이 釋尊을 삼 개월 공양했다는 이야기이다. 24段은 하루 전에出家해 있었던 毒龍이 持戒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사냥꾼에게 자기 몸 껍질을 바쳤다는 大力毒龍本生, 25段은 이(虱)本生譚으로, 어느 比丘에게 寄生해 살고 있던 이가 비구와 약속을 하여 比丘가 坐禪 수행 시는 괴롭히지 않고 그의 說法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劔持雄二씨는 22段의 師子王本生의 出典으로서 『十誦律』 제26권(大正藏 二十三, 246a)을 들어 『類集抄』의 인용태도가 대체로 原典에 충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은 『十誦律』를 인용하여 수록한 『經律異相』에 依據하고 있다. 上記의 標題는 『經律異相』의 目錄 및 本文標題와 완전 일치한다. 게다가, 위치해 있는 順番까지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經律異相』

師子王本生은 48권(大正藏 五十三, 245c), 典據는 『十誦律』

象王은 47권(大正藏 五十三, 246c), 典據는 『僧祇律』

大力毒龍本生은 48권(大正藏 五十三, 256a~b), 典據는 『大智度論』

虱本生은 48권(大正藏 五十三, 258b), 典據는 『報恩經』

이와 같이, 『類集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배열까지도 참조한 것으로 보여 직접 『經律異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서 師子王本生의 冒頭부분을 劔持씨가 出典으로 들어 비교한 『十誦律』을 포함해 三者 對比해 둔다.

(十) 過去世近雪山下。有師子獸王住。作五百師子主。

(異) .
(類) . 王

(十) 是師子王後時老病瘦眼闇。在諸師子前行。墮空。

(異)
(類)

(十) 井中。五百師子皆捨去。余時去空井不遠有一野干。

(異)
(類)

((異)·(類)에서 空白부분은 (十)과 동일, <·> 는 해당부분 없음의 기호)

8) 劔持雄二씨, 「藏俊僧都作『類集抄』について」(『待兼山論叢』 제 16号、1984.12).

『類集抄』의 「王」은 확실히 「主」의 誤寫 혹은 誤讀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經律異相』은 『類集抄』에 직접 인용되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연구사상 처음으로 일본문헌에 등장하는 쏠 本生담의 분석을 통해 일본에 受容된 本生담의 數와, 本生담의 主題別 분류와 出典經典의 조사를 통해 일본 本生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사해 본 결과, 일본에서는 100개의 本生담의 수용이 확인되었고, 그 중 87개는 釋尊의 전생이야기로서 受容, 攝取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13화는 釋尊의 전생이야기로서 受容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文獻상으로 볼 때, 本生담은 說敎에서 譬喩因緣譚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기에, 불교설 화집 및 仏傳, 仏書에 많이 등장하나 本生담의 일본 내 유포에 따라 소설, 가요, 註釋書 등 문학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主題別로는 다양한 주제가 보이는데, 「六波羅蜜」 「孝養報恩」 「求法聞法」 「因果의 道理(宿業) 說示」에 얽힌 이야기가 많았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孝養報恩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釋尊本生, 求法者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釋尊本生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랑 받으며 많이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出典經典으로는 『大智度論』, 『報恩經』, 『法華經』, 『涅槃經』에서 나온 本生담이 특히 많았다. 그리고 『類集抄』의 경우처럼 『經律異相』에서 직접 本生담을 인용하는 등 중국에서 만들어진 仏書도 많이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業, 輪廻, 因果의 理致 등, 本生담은 思想的으로도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서의 人間釋尊觀의 이미지 형성에 本生담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參考文獻】

- ・池上洵一(1984) 「天竺から來た説話 - 月の兎 -」, 『今昔物語集の世界』, 筑摩書房 P142-162.
- ・岩本裕(1979) 『仏教説話の原流と展開』, 開明書院, P79-127.
- ・黒部通善(1989) 『日本仏伝文學の研究』, 和泉書院
- ・小峯和明(1989) 「仏伝と繪解き」, 『繪解き - 研究資料 -』, 三弥井書店, P358-384.
- ・竹村信治(1989) 「仏尊伝」, 『解釋と鑑賞』 (9월호).
- ・徳田和夫(1994) 「本地物語の基層」, 『岩波講座日本文學と仏教 제8권』, 岩波書店, P264-275.
- ・干潟龍祥(1979) 『ジャータカ概観』, 鈴木學術財団.
- ・干潟龍祥(1979) 『本生経類の思想史的研究』, 改訂増補版, 山喜房仏書林.
- ・松村恒(1995) 「〈河海抄〉所引の施身聞掲説話」, 印・仏・研 제43권 제2号, P16-28.
- ・渡辺愛子(1996) 「ジャータカの生命観」, 眞宗文化 제5号 P77-104.

K C I

要 旨

本論文は、研究史上始めて日本中古中世文獻に登場する本生譚の収集・分析を通して、日本に受容された本生譚の數とその特徴を本生譚の主題と經典の兩面から探ってみたものである。

調べてみたところ、日本には約100個ほどの本生譚の受容が確認された。そのうち87個は釋尊の前生の物語として受容もしくは享受されたが、残り13個については今のところ釋尊の前生の物語として受容された形迹が認められないものである。

本生譚は法會の場でよく譬喩因緣譚譬として語られていたため、主として仏教説話集や仏伝に多く登場するが、日本での流布につれて次第に物語、歌謠、『源氏物語』註釋書等、廣範に受容されていることが知られた。

主題としては日本でも多様な主題が見られるが、「六波羅蜜」「孝養報恩」「求法聞法」「因果の道理(宿業)の説示」に纏わる話が多かった。日本において特に注目されるのは孝養報恩の代表的存在としての釋尊本生、求法者の代表的存在としての釋尊本生が好んで語られていたことである。

出典經典としては『大智度論』『報恩經』『法華經』『涅槃經』から出た本生譚が特に多かった。また『類集抄』のように原典に直接よらず、『經律異相』から孫引きした場合もあって中國で作られた仏書も多く利用されていた。

業、輪廻、因果の道理など、本生譚は思想的にも日本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みられる。何よりも注目すべきは、本生譚は日本における人間釋尊觀のイメージの形成に多大な影響を及ぼした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本生譚, 日本本生譚, 자타카, 本生經類, 本生譚 과 主題, 本生譚 과 經典

투 고 : 2003. 8. 30
2차 심사 : 2003. 9. 13
3차 심사 : 2003. 10. 10

住 所 : 219-70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신91-1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電 話 : 033-639-0313
E-mail : tqkim@kl.ac.kr